

## 독일 A7 노후 교량 정밀 발파 철거... 공사기간 최대 8개월 단축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Die Autobahn GmbH des Bundes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시설물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

- 독일 연방도로 운영기관 Autobahn GmbH는 2026년 3월 15일 헤센주 아이헨첼 인근 A7 탈라우바흐 교량의 기존 두 부분 구조물 발파 철거를 성공적으로 완료
  - 발파 철거를 통해 뷔르츠부르크 방향 두 번째 신규 교량 구조물 건설 부지를 확보하고 전체 교체 신축 사업 기간을 최대 6~8개월 단축할 전망
    - 독일 연방정부는 전체 사업에 약 1억1,5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며 A7 노선의 장기적인 교통 처리 능력 향상과 시설 현대화를 목표로 사업 추진
    - 관계 기관은 정밀한 준비와 현장 협업을 통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발파 작업을 완료했으며 복잡한 공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
  - 신규 구조물 인근에서 진행된 발파 작업은 기존 시설 철거와 신설 구조물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공정으로서 높은 안전성과 정밀성을 바탕으로 수행
    - 기존 구조물 철거 이후 신규 두 번째 교량 상부 구조물 시공과 후속 토목 공정이 가능해지며 전체 사업 추진 속도 제고 기대
    - 발파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B279 도로 통제 기간과 후속 교량 공사가 더 길어졌을 것으로 설명되며 교통 불편 완화 효과도 기대
- 발파는 기존 교량 구조물을 순차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즉시 교통 정상화 절차 착수
  - 1969년 건설된 기존 두 구조물은 3초 간격으로 차례로 붕괴되도록 설계됐으며 정밀 발파 방식 적용
    - 각 구조물은 길이 약 320m, 높이 약 40m 규모이며 총 12개 교각에 약 100kg 폭약과 약 1,000개 기폭장치를 설치해 계획된 방식으로 철거 추진
    - 교각을 약화시켜 상부 구조물이 준비된 낙하 지점으로 수직 붕괴하도록 설계했으며 주변 신규 구조물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정 관리 수행
  - 발파 직후 신규 구조물 안전 점검과 교통 재개 조치가 진행됐으며 후속 정리 작업도 순차 착수 예정
    - 검사 결과 신규 구조물은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당일 오후 A7 고속도로 전면 통제가 해제되고 차량 통행이 재개
    - 향후 수개월간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를 철거하고 재활용 작업을 진행하며 B279 도로는 4월 초 재개통 예정

※ 출처 : Die Autobahn GmbH des Bundes(2026.03.15.), A7: Thalaubachbrücke erfolgreich gesprengt